

강제징용 한 서린 시할린의 한인들 통일 염원 뜨거워 만세 함성 외치다

'3·1운동 100주년 평화통일 페스티벌' 열린 시할린을 가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1일 방문한 러시아 시할린주 향구도시인 코르사코프시 '망향의 언덕'.

일제에 의해 이역만리로 끌려와 강제징용을 당하고,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의 한이 서린 망향의 언덕은 73년 전 그때처럼 영하 20도의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언덕 중앙에는 10m 높이의 배 모양을 형상화한 위령탑이 금방이라도 바다를 헤치고 고국으로 달려갈 기세로 서 있었다.

시할린 망향의 언덕은 1945년 광복 이후 수많은 한인이 고국행 배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일본은 당시 시할린에 억류된 자국민에 대한 귀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지켜본 한인 수만여명도 고국으로 가는 배가 곧 올 것이라는 소식에 러시아 시할린주 코르사코프 향구에 모여들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한인들은 망향의 언덕에 올라 배고픔과 추위에 맞서 싸우며 오직 바다 만을 바라봤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고국을 향하는 배는 오지 않았다. 절망한 한인들 중 일부는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고국행 배 기다리다 목숨 잃은 망향의 언덕엔 아픈 간직한 위령탑 근면성실 한인들 이젠 '성공의 땅' 민주평통유럽지역회의 주최 행사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벽찬 감동 동포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계기로

씩 목숨을 잃었다.

강제징용의 아픔이 맺혀 있는 동토(凍土)의 섬 시할린은 러시아 연해주 동쪽의 섬으로 1910-1918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조선의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정착한 땅으로,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의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땅이기도 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는 "한때 고향땅을 떠나 하루 한 끼 식사조차 먹기 어려웠던 한인들이 오랜 고생 끝에 대형 호텔부터 주요 핵심상권의 주인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할린 인구(50만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시할린 경제를 주도하면서, 경제계는 물론 정치계 등에서도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한 많은 땅에서 성공의 땅으로 거듭난 러

시아 시할린에서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만세 함성'이 울려 퍼져 해외 동포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주최,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회 주관으로 지난 20일 러시아 시할린주 유즈노시할린스크시의 약짜브리 극장에서 열린 3·1 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 페스티벌'에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이상민 의원, 신우철 안도군수 등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운영위원을 비롯한 한인 후손, 러시아인 등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대한 독립 만세' 등을 외치며 3·1 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관련 인터뷰 22면>

기념식은 교복과 한복을 입은 박종범 부의장 등 33명이 돌아가며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인 참석자들은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독립선언서 낭독 등에 귀를 기울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 중간 중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석자도 많았다.

기념식이 끝난 무렵, 참석자 모두는 한 목소리로 3·1절 노래와 내 나라 내 겨레 등을 부르며 미리 준비된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흔들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불렀다.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부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탄광에서 힘겨

운 노역을 했던 한인의 피와 땀, 흔적이 공존하는 시할린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시할린 지역 동포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시할린=김한영 기자 young@



러시아 코르사코프시의 '망향의 언덕' 위령탑.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자문위원과 시할린 한인들이 지난 20일 러시아 유즈노시할린스크의 약짜브리 극장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시할린=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중흥건설 “순천 삼산중 이설공사 이달중 조건없이 착수”

중흥건설이 2월 중 순천 삼산중 이설·설립 공사에 조건 없이 착수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관할 자치단체인 순천시 요청에도 학교 이설공사와 건설관련 인허가 문제와 연계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착공을 미뤘던 중흥건설은 '학생을 볼모로 건설사 민원을 풀려한다'는 비변 여론이 커져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삼산중 이설 지면에 따른 원거리 배정 등 학생 불편 우려

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일보 2019년 2월 21일자 6면>

24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이달 중 삼산중 이설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지난 22일 순천시에 전했다.

중흥건설 측은 지난 2017년 맺은 삼산중 이설 관련 협약대로, 2020년 3월 삼산중학교가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에 나서겠다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고 순천시는 덧붙였다.

앞서 중흥건설은 '중학교 건립에 1년여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조속히 공사에 나서달라'는 도교육청, 순천시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선월지구 택지개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의 협조가 있으면 학교 공사에 나설 것이라며 학교 이설공사와 건설사 '민원'을 연계할 방침을 공공연

히 밝혔다.

중흥건설의 이런 태도에 순천지역과 교육계 안팎에서 '학생을 볼모로 건설사 민원을 풀려고 한다'는 비난이 이어졌었다.

중흥 측은 앞서 지난 2017년 전남도교육청·순천시·광안만경제자유구역청과 맺은 협약에서 '순천 원도심(매곡동)에 위치한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설한다'고 약속했다. 대신 중흥건설은 기존 삼산중 부지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개발할 예정이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에 패소

법원 “임금 주고도 현금 남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1심의 4224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경

우 최대 1조67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해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찰 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자은도서 음주 뺑소니로 5명 사상자 낸 태국인 검거

목포경찰은 24일 만취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태국인 A(3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자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0분경 신안군 자은면 편도1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던 중국인 5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이다. 이 사고로 중국인 B(71)씨가 목포의 한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중국인 여성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여권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대피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이날 수확 작업을 마친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용 하차 사고를 냈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35% 상태로, 면허도 없었다.

사고를 당한 중국인 5명도 모두 여권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으며, 이날 수확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인근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상가털이범, 편의점서 훔친 동전 지폐로 바꾸다 '털미'

광주북부경찰은 24일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이모(28)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동전 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상가, 찜질방 등에서 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11번인 이씨

목포서 잇단 강도...시민들 불안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검거 편의점 강도 20대 긴급체포

목포에서 강도사건으로 1명이 숨지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50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A(33)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도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사전에 해당 금은방을 수차례 답사한 뒤 손님이 적고 주인이 여성인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 주인 B(여·48)씨는 A씨의 흉기에 찔려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

국 숨졌다.

A씨는 인근 삼정 주인이 B씨의 비명을 듣고 오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몰고 나주방면으로 도주했다가 이날 밤 10시 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23일 오전 8시 10분께에는 목포시 산정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C(26)씨가 특수강도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C씨는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중업원 D(31)씨를 위협하고 현금 1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C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도망쳤으나, 이날 밤 1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알뜰모로 발코니에 서있기만 해도 공연음란죄 해당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문춘인)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36)씨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뒤 정오에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3~4분정도 서 있다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30대 여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는 것.

○1심 재판부는 “야외수영장에 있던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고영장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합적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2018타권 6700	1	사용본거지:목포시 삼학로 183번길 1 2층 [자동차] 등록번호:1764308 차량:K5 연식:2013	7,700,000	보관장소:무안군 일로읍지리장리535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매각대상: 농지매각대상임을 증명하는 최고매수신고인이 매각대상지까지 농지특허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보충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공표기간: 2019. 3. 11. [월] 10:00 3. 매각대상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대상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대상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유지정보의 사전변조,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의 등 기록하고 남양하여 보증금을 통해 입찰후부터 낙찰 입찰결과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는다. ②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수가격의 1% [100원]이하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차감후의 차액만으로도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표기간이 만료된 후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그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저매수가격을 공표후부터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시에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확정된 대금지급기한이 지 아니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② 대금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⑤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⑥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⑧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⑨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⑩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대상지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

2019. 2. 25.